

교육

학파라치 신고 기준 시·군마다 달라요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

수강료 상한액·교습 제한 시간 등 제각각
불법 증거 자료 첨부 서식 갖춰 신고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내놓은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인 숙청 '학파라치'가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관련 문의가 빙빙돌고 있다. 학원 허용시간에서부터 개인과의 위법여부, 신고 방법 등 질문의 내용은 천차만별이다. '학원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에 대해 살펴봤다.

◇'학파라치' 제도 = 학원의 불법·편법 영업 행위를 신고하면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받는 제도다.

포상금으로는 학원비 초과 징수 및 교습 시간 위반 30만원, 무등록 학원·교습소 신고 50만원,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교습 과외 교습소 운영 시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습소 월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단 1인당 포상금은 연간 250만원으로 제한되며, 다수가 같은 내용을 신고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겐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학원과 관련한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율 지도원,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학원 신고하면 포상금 = 전국 16개 시·도마다 위법 학원을 판단하는 기준은 제각각이다. 자 사·도마다 조례로 정해 놓은 수강료의 상한액과 교습 제한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광주의 경우 학원 교습 시간은 고등학교

는 자정까지, 초·중학교는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수강료는 보습학원은 1월 1시간, 월 20시간 기준으로 5만 1천400원을 넘으면 안된다. 입시 종합반은 1월 6시간, 월 120시간 기준으로 16만 4천 800원이며, 입시 단과반은 1월 1시간, 월 20시간 기준으로 5만 1천 700원이다.

전남은 초·중·고 모두 자정까지 학원 교습이 가능하다. 수강료는 농산어촌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22개 지역 교육청마다 수강료 상한액이 다르다. 이에 따라 신고전 해당 교육청에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한편 개인 과외의 경우에는 대학·대학원 재학생은 신고가 필요 없고, 휴학생이나 일반인은 교육청에 과외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어떻게 =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서는 신고를 받지 않는다. 학원 지도·단속 권한은 소재지 관할 지역 교육청에 있다. 광주는 동부와 서부 교육청 2곳이고, 전남은 22개 시·군에 한 곳씩 있다. 해당 교육청에 방문 또는 서면, 전화 신고 등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고는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 학원비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다만, 학원의 불법·편법 행위의 자료를 첨부한 신고 서식을 갖춰야 한다. 학원의 불법·편법 행위를 녹화한 영상이나 사진, 그리고 학원비 내역(신용카드 내역서 및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된다.

본지 기자 lucky@kwangju.co.kr



무더위로 '열대야'마저 시작된 요즘,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학원기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학원가의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나섰기 때문이다.

조선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중간 평가 우수

조선대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박길문)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실시한 2차년도 중간평가에서 우수 대학에 선정됐다.

지난 2007년 교과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시행된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은 전국 공과대학 가운데 60개 대학이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은 5년 사업으로 매년 연차 평가에 의해 계속사업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조선대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대상 역량강화 보수교육 주관대학'에 선정됐다. 전국 16곳이 응모한 가운데 호남권 조선대를 비롯해 영남권 계명대, 서울권 이화여대 등 7곳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조선대는 오는 8월 8일 호남권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80명을 대상으로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 현장 밀착 강의 중심의 역량강화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광주여대 작업치료학과 전원 면허시험 합격

광주지역 대학 최초로 설립된 광주여대(총장 오장원)의 작업치료학과는 2009년 첫 졸업생 전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된 2009년 작업치료사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했다.

특히 이들은 7월 현재 25명 전원이 100% 취업해 전국의 종합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종사하고 있다.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은 세계작업치료사 연맹의 요건에 맞는 교과과정을 이수하며 1, 2학년 때 교내 작업과학연구소에서 교수

진의 치료교육 상담 보조 역할 및 장애인에게 직접 감각통합치료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또한 3, 4학년 때는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국립재활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최고 수준의 작업치료기관에서 임상 실습을 실시한다.

작업치료는 물리치료와 함께 재활치료의 한 분야로, 물리치료가 물리적 원리를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반면 작업치료는 일상생활 용구, 놀이기구 등을 동원한 작업을 통해 환자를 치료한다.

전남대 연구장비·지식재산 지역사회 제공

전남대학교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연구인력과 연구장비, 지식재산권 등의 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전남대 산학협력단(단장 남계준)은 지역 산업체 및 일반연구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연구지원 정보시스템(CNU-RIS)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전문인력 이상의 연구인력 1천338명에 대한 상세정보를 담고 있으며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 945기와

지식재산권 312건에 대한 활용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기업체 등은 이 시스템을 통해 논문실적, 연구과제, 학위, 경력 등 개인별 기본정보를 검색해 연구·기술자문이 필요한 연구인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장비도 예약신청을 통해 활용이 가능하다. 또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기술분야, 기술개발 상태, 응용분야 등의 정보를 제공해 기업체들이 이를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광주교대생 전남 임용고시 가산점 상향

4점서 6점으로...농어촌 교육실습도 2주로 늘려

광주교육대학교 학생이 전남지역 교사 임용고시에 지원할 때 주어지는 가산점이 상향조정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광주교육대와 공동협력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역교대 출신 가산점 우대, 농어촌 교육실습, 교사위탁 확대 등 10여건의 안전에 대해 의견을 모았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교대생에게는 4점의 가산점이 주어졌으나 6점으로 높였으며 농어촌 지역 교실실습도 1주에서 2주로 늘리기로 했다.

임용고시 때 평균 1~2점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가산점 상향의 의미가 적지 않다. 매년 신규 임용되는 500명 안팎의 교사 가운데 다른 지역 교대 출신비율은 30% 정도다. 이 제도는 오는 9일 실시되는 임용고시 때부터 적용된다.

전남 도서벽지에 의무기간(5년) 근무하는 조건으로 교대생 가운데 특별 선발되는 이른바 '전남반 학생'도 현행 60명 수준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 기관의 공동협력위원회는 도 교육청 초등과장과 광주교대 기획연구처장이 공동의장으로 지난 2005년 구성했다.

본지 기자 lucky@kwangju.co.kr

원어민 영어교사 한국생활 적응 돕는다

광주시교육청 한국어교실 등 프로그램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 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교사(128명)를 위한 한국어교실과 영문판 안내책자 배부, 직무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대원어교육원에 위탁한 한국어교실은 45명의 원어민 교사가 12주간의 코스를 모두 마치고 최근 수료식을 했다. 매주 2차례, 방과후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이뤄지는 한국어 수업은 학생들과

기본적 대화가 가능하도록 한글 습득과 한국문화 등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시 교육청은 2학기에는 초급, 중급반 등 수준별반을 편성해 수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광주 바로알기' 영문판 안내서를 제작해 배부하는 한편 전반적인 영어교육정책이나 업무처리 방법, 계약내용 등을 담은 원어민 생활지침서도 제작했다.

가이드북은 한국의 교육과정과 학제, 초·중·고교의 특성, 교육청 소개, 원어민 교사를 위한 일본어 등 담고 있다.

본지 기자 lucky@kwangju.co.kr

동신대 '과자 제조 기술' 식품업체에 이전

대학이 개발한 기술로 대학 내 벤처기업이 생산한 과일 건조 과자가 해외 시장으로 수출돼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 산업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 하는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친환경 농식품산업화센터(소장 최정식)는 자체 개발해 보유하고 있던 '과일을 이용한 건조 과자 제조 기술'을 대학 기업인 식품제조업체 헬시바F&B에 기술이전, 상품화하고 최근 유통전문업체인 농협사법인위식회사 골든힐을 통해 2만달러 상당의 제품을 미주시장에 수출하는데 성공했다.

식품 제조회사인 헬시바F&B(대표 김현

수)는 지난해 10월 동신대 산학협력단에 입주해 창업한 이후 친환경농식품산업화센터의 기술을 이전받아 배, 사과, 감, 포도, 딸기 등 5개 품종의 건조과일 칩을 생산해왔다.

이번에 개발한 건조과일 칩 생산 기술은 설탕과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고, 열풍건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농식품 가공 기술을 한 차원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신대 산학협력단은 향후 소비자들의 반응과 선호도를 면밀히 조사해 시장 규모를 파악하고, 우선 내수매를 중심으로 각 능력 영농조합에 기술을 이전에 생산 규모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법원부동산경매정보. 국민법률경매(주) 서구청영 광주세무사타운. 공인중개사/경매분석사: 정미경. TEL: 062-351-0664. H·P: 010-7628-0664. Includes tables for auction results by district.